

<열린 나>의 정치사상*

— 최제우 · 안재홍 · 김지하를 중심으로 —

鄭 允 在 (정신문화연구원)

I. 서론: “열린 나”(trans-individuality)와 현대세계

오늘날 인류는 전례없는 도덕적, 생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는 인류의 미래와 관련하여 매우 치명적인 문제이다.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확산과 함께 일상화되어버린 쾌락주의와 물질주의는 인간을 거의 동물과 같은 상태로 타락시켰고, 균형을 잃은 생태계와 자연부존자원의 고갈현상은 세계 모든 인류가 과연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하는 존망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앞으로 인류문명이 지속될지의 여부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발견하고 실천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것은 정치사상 또는 정치철학을 공부하는 학자들 역시 인류미래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 마땅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¹⁾

근대서양의 합리주의 전통에서 자아는, 데카르트의 철학적 인간론에서 보듯, 주변의 모든 사물에 대해 “고립되어 있는 존재”(isolated center)로 간주되어 왔다. 근대합리주의에 있어서 인간은 건방지고, 의기양양하며, 거만하고, 원자와 같이 고립된 존재이다. 그래서 서양의 남자와 여자들은 그들 자신과 자신의 힘

* 본고는 원래 영어로 작성되었던 것을 본 학술대회 발표용으로 쓰여진 것임.

1) 인류의 미래와 미래세대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다. 영국의 도덕 이론가인 테렉 파휘트 박사는 그의 책 총 4부 중 1개 부를 미래세대의 문제에 할애하면서, “우리가 미래세대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묻고는 “다음 2, 3세기 동안에 인류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덕이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Derek Parfit, *Reason and Persons*(Oxford: Clarendon Press, 1987), p.351 and Part 4 참조. 미래세대에 대한 각 분야 학자들의 관심에 대해서는 일본의 장래세대총합연구소가 장래세대연구시리즈로 펴낸 다음 2권의 책에 잘 나타나 있다. Milton Moskowitz, ed., *Thinking about Future Generations*(1994, Series 1); T.C. Kim and Jim Dator, eds., *Creating a New History for Future Generations*(1994, Series 2).

— 즉, 진리를 추구하고 인간사회를 이상사회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발휘되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 —에 대해 거의 무조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리는 인간의 이성적 정신활동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며, 인류가 꿈꾸는 이상사회는 인간의 합리적인 계획과 경영으로 얼마든지 성취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사고경향이 곧 서양인들이 그동안 마음에 두고 살아왔던 인간관이자 세계관이었고 계몽주의철학의 핵심내용이기도 하다.²⁾ 이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루소는 인간자아가 “부잣집처럼 무엇인가가 가득 차 있고, 내용이 충실하며, 초월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했지만, 그가 발견했던 자아는 인간의 자기무오류성(self-rightousness)을 부추기고, 상호이해를 방해하며,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는, 심각한 정도의 교만함(arrogance)을 내포하고 있다.³⁾

그러나 이렇게 “교만하고 고립된 존재”(an arrogant and isolated center)로서의 서양근대합리주의의 자아개념은 개인과 국가들 사이의 상호협력과 지구적 상호의존성이 세계평화와 인간생존을 위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신세계질서의 시대에 별 쓸모가 없다. 근대의 합리주의적 자아개념에 바탕을 둔 정치적 원자주의(political atomism)는 개인과 개인의 권리가 사회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옹호하고, 사회를 순전히 도구주의적 관점에서만 바라본다. 정치적 원자주의는 개인의 특정단체에의 소속과 그에 대한 의무라는 무조건적인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원자론이 인간은 각 개인으로서 스스로 자족적인 존재라는 견해를 용인하는 것이라면, 원자론은 매우 문제가 있는 주장이다. 그래서 최근 일부 학자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녔던 의기양양하고, 과대망상적이며, 원자적인 자아개념은 이제 “온건하고, 현실적이며, 유기체적인”(modest, down-to-earth, and organic)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

2) Myung-hyun Lee, “Paradox of Techno Utopia” 한국철학회 주최 Paths to Human Flourishing: Philosophical Perspectives에 대한 서울국체철학학술회의(1992. 8.19-20) 발표 논문 참조.

3) Robert C. Solomon, *Continental Philosophy Since 1750: The Rise and Fall of the Self*(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1.

4) 이상의 원자론 혹은 정치적 원자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함. Charles Taylor, “Atomism,” in Shlomo Avineri and Avner de-Shalit, eds., *Communitarianism and Individualism*(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29-32.

현대자유주의와 그의 자아개념에 대한 바로 이같은 비판은 정치적 원자주의에 대한 철학적 극복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 필자는 현재의 인류와 미래세대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인간은 “열린 나”(trans-individuality)임이 재발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열린 나”란 원자적인 고립을 넘어 우주의 여러 대상들과 존재론적, 시간적, 또는 공간적 상호연관관계를 유지하고 존재로 규정할 수 있다. 인간을 원자와 같은 물건으로 간주하거나 기계적 우주론이 보편화되었던 근대서양철학에서 이같은 인간의 “열린 나”적 특성들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소홀히 취급당했다. 이 “열린 나”에 대한 인식의 결핍이 오늘날 도덕적 타락과 생태적 위기의 주요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열린 나”는 동·서양의 철학적 전통 속에서 얼마든지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인류가 도덕적 타락을 극복하고 생태적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이러한 “열린 나”적 특성들이 재발견되고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우선 한국의 최제우, 안재홍, 김지하의 철학적 저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우, 이러한 “열린 나”가 각각 어떠한 개념으로 나타났으며 어떠한 사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검토할 것이며, 그 이론적 함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것을 통해 필자는 이같은 “열린 나”의 개념과 정치사상은 “고립되고 교만한 존재”로서의 서구의 전통적인 자아개념을 새롭게 계몽, 수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인류미래를 위한 창조적인 정책이노베이션과 정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필요한 철학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II. 최제우의 자아개념: 한울님으로서의 自我 개념

최제우(崔濟愚, 1824-1864)는 1860년에 동학을 창시했다. 동학은 조선조말기에 등장한 한국의 토착적 종교철학의 하나로 1894년 동학농민전쟁의 발발을 가능하게 했던 저항이데올로기와 조직의 원천이었다.⁵⁾ 최제우는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유교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는데, 그는 공자

5) Shin Yong-ha, “Conjunction of Tonghak and the Peasant War of 1894,” *KOREA JOURNAL*, Vol.34, No.4(Winter 1994), p.59.

와 맹자의 책들 뿐 아니라 육상산(陸象山)과 왕양명(王陽明)의 책도 읽었다. 그러나 그는 소설의 자식이었고, 게다가 정치적 부정부패가 심했던 이유로 벼슬에 오를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불행한 처지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정신적 구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많은 정성을 쏟았다. 그는 정치없이 전국을 떠돌며 사색과 명상을 계속했는데, 이렇게 유랑하는 동안 그는 불교, 도교, 그리고 가톨릭에 관한 책들을 접하고 공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최제우의 구도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마침내 최제우는 집으로 되돌아와 종교와 철학책들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고, 밥먹는 것도 잊은 채, 기도하고 명상에 침잠하기도 했다. 이러기를 6년여의 세월이 흘렀고, 최제우는 마침내 한울님과 신접하고 계시를 받아 도를 깨달았다고 전해진다. 그에 의하면, 이 새로운 도는 존망지추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는 구원(救援)의 도였다.

최제우는 이 새로운 도를 당시 조선사회에 들어왔던 서학(西學, 즉, 가톨릭)에 마주 대한다는 뜻에서 동학(東學)이라 명명했고, 제3대 동학교주였던 손병희는 동학교를 천도교(天道敎)라고 개칭했다. 최제우는 동학을 창도하며, 보국안민(輔國安民) 광제창생(廣濟蒼生)을 내세웠으며, 19세기 중엽의 조선사회를 봉건적 모순과 국가적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한 대대적인 혁명을 추구하였다. 1894년의 동학농민전쟁은 농민들 뿐 아니라 전국의 동학교도들이 궤기함으로써 일어난 전국적인 민중항쟁으로 농민수탈과 양반중심의 계급사회의 종식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한국 최초의 근대적 변혁운동이었다.⁶⁾

최제우가 동학을 창시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종교와 철학사상들을 종합하고자 노력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는 유교를 중시했고 또 그 영향도 많이 받았던 것 같다. 당시에 가톨릭으로 개종했던 조선사람들에 대해 최제우는 “우리의 순진한 백성들이 예(禮)와 오륜(五倫)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조선사람들을 서양의 제국주의적 기독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히 오륜과 같은 유교적 도덕들을 올바르게 지키게 하는 것이라 했다. 즉, 유교적 가르침에 따라 수심정기(修心正氣)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⁷⁾ 그러나 최제우의 동학사

6) Shin Yong-ha, op. cit., p.59.

7) Joon Sik Choi, “The Concept of Peace in Korean Thoughts: A Study of the Concept Seen in the Thoughts of the Three New Religious Thinkers of Nineteenth Century Korea,”

상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중용(中庸)의 첫부분에 나오는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에 대한 그의 독창적인 해석이다. 즉, 그는 이것을 “사람과 하늘은 하나요 똑같다”, 즉 인내천(人乃天)으로 해석했는데, 이것은 동학사상 전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 있는 핵심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모든 사람이 모두 한울님과 같은 천성을 지녔고 또 그러기에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조선시대에 마땅히 모든 사람들이 차별 받지 아니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에 유교에 대한 신분서열적 해석에 대해 도전할 만큼 용기 있는 유교적 선비가 없었다. 그러나 최제우는, 인내천사상을 바탕으로, 귀족과 평민 혹은 노예, 남자와 여자 사이에 더 이상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용감하게 선언했던 것이다. 그의 사상은 주로 동경대전(東京大典)과 용담유사(龍潭遺詞)에 나타나 있으며, 1864년 흑세무민한다 하여 관군에 붙잡혀 참수를 당했다.⁸⁾ 그의 인내천사상을 중심으로 한 동학사상에 나타난 자아에 대한 그의 생각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마음 혹은 영혼은 한울님의 그것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다.⁹⁾ 따라서 한울님은 사람의 바깥에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인간의 마음이나 영혼에 내재한다.¹⁰⁾ 인간과 한울님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관념에서, “사람 속에 있는 한울님 섬기기”라든지 “사람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한울님을 섬기는 것”이란 사상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제우는 “사람이 곧 한울님이요, 한울님이 곧 사람이다”¹¹⁾라고 설교했던 것이다. 한울님이 사람 안에 내재한다는 사상은 동학교도들이 외우는 “네 안에 있는 한울님을 잘 섬기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일생을 통해 한울님을 인정하고 따르면, 네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라”라는 주문에도 나타나 있다.¹²⁾ 동학교의 제2대 교주였던 최시형(1829-1898)도 “사람이 곧 한울님이니 한울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라, 그리고 집안에서 있을 때, 바깥에서 손님이 오면 하늘에서 한울님이 오셨다고 생각하라”고 가르쳤다.¹³⁾ 최제우의 이러한 인내천사상은 그가 유교사상을 세속화, 대

KOREA JOURNAL, Vol.32, No.1(Spring 1992), p.11.

8) Lee Ki-baek, *A New History of Korea*(Seoul: Ilchogak, 1984), pp.258-259.

9) Lee, op. cit., p.258.

10) Choi, op. cit., p.12.

11) *Tonghaksal*[The History of Tonghak], p.5; Shin Yong-ha, op. cit., p.66.

12) Choi, op. cit., p.12.

중화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¹⁴⁾

둘째, 사람은 한울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한울님 자신이다.¹⁵⁾ 동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접근방식이 가톨릭을 포함한 여타 종교들과는 다르다. 다른 종교들에 있어서 신은 인간과는 멀리 떨어져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인간은 신의 종으로서 그러한 신에게 마땅히 복종하고 지배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동학에서 인간은 신(한울님)의 소유물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은 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따라서 인간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긴다.¹⁶⁾ 중용에서 천명은 비인격적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동학에서의 한울님은 인격적 존재로 믿어지고 있다.¹⁷⁾ 이러한 사상은 최제우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 속에 아주 세련되게 표현되어 있다: “도대체 나를 믿지 말고, 한울님을 믿으시오. 한울님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지 마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몸 안에 있는 한울님을 섬기기만 하면 되니까요.”¹⁸⁾

셋째,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수련하면 해탈이나 구원과 같은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동학교도들은 누구나 자기안에 있는 한울님을 3년 동안만 잘 섬기면 천자(天子)나 지상선인(地上仙人)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천자는 유교에서 말하는 최고수준의 이상형이고, 지상선인은 도교의 최고수준의 이상형으로서 노예나 천민은 물론 보통사람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최고의 경지는 몇 안되는 종교지도자들이나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제우는 누구든지 간단한 수련만 하면 다 해탈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같이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종교적 관행을 깨버렸다.¹⁹⁾ 그는 누구든 성(誠), 경(敬), 수(修) 3가지 원칙에 따라 자신을 훈련하고 한울님을 섬기면 도를 깨우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최제우의 이같은 가르침은 동학이 신유교주의의 영향을 받은 증거로 얘기되고 있다.²⁰⁾

13) *Tongbaksa*, p.64.

14) Shin Il-chol, “Ch’oe Suun-ui Yoksa Usik”(On Historical Consciousness of Suun), in *Tonghak Sasang-gwa Tonghak Hyongmyong* [Tonghak Thoughts and Tonghak Revolution], ed. by Yi Hyon-hui(Seoul: Chong-a Press, 1984), p.20.

15) Shin Yong-ha, op. cit., p.66.

16) Ibid.

17) Choi, op. cit., p.12.

18) Choe Suun, “Kyohun-ga”(A Song for Instruction), Chapter 5; Choi, op. cit., p.12.

19) Choi, op. cit., p.12.

한울님으로서 자아 혹은 한울님이 내재하는 자아에 대한 이같은 철학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최제우와 동학교도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같이 자신 안에 내재하는 한울님을 똑같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양반과 상민 사이의 차별이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최제우가 종교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인간평등을 주장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수범을 보였다는 사실에서 찾아질 수 있다. 즉, 그는 집안에서 부리던 여종을 해방시켜, 한 사람은 수양팔로, 다른 한 사람은 며느리로 삼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수범을 보였던 것이다. 평등사상에 입각해서 전통적 신분중심의 위계질서에 대해 이렇게 도전했던 예는 500년 조선역사상 전혀 없었다. 이 평등사상은 “집안의 며느리를 며느리로 보지 말고 한울님으로 보라”고 가르쳤던 최시형에 의해 계승되어 확대발전하였고, 인내천사상과 함께 1894년의 동학농민전쟁과 방정환의 어린이 보호운동 및 어린이 날 제정과 같은 이후의 인간해방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동학의 인내천사상과 평등사상은 지금도 한국의 미래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과 한울님과의 존재론적 관계를 강조하는 최제우의 자아개념이야말로 인간존엄성과 상호존중의 진실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동학사상이 자유민주주의 대신 통일한국의 이데올로기로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최제우는 사람이 곧 한울님으로, 사람은 한울님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음을 주장했는 바, 그의 자아개념은 “신적” 개념(divine concept)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최제우에 있어서 “열린 나”는 존재론적으로 한울님 혹은 신을 향하여 열려있음을 선언함으로써 현대한민족사상 인간평등사상의 자각과 보급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간이 신과 존재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이 사람의 존엄과 품위, 그리고 상호존중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근대시민혁명 이후 이른바 자유주의적 가치들이 계속 옹호되어 온 것은 그것들이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합리주의적인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²¹⁾ 그러나 현대자유주의에서부터 하나님은 “세속적인” 인

20) Ch'oe Suun, “Tosu-sa”(On Tao), Chap.1.; Ibid.

21) 이러한 점은 다음에 잘 나타나 있다. John Dunn, *Western Political Theory in the Face of the*

간본성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민주주의가 정치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처음 출발 때에 지니고 있던 초월적 차원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비판받고 있다.²²⁾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제우의 신적인 자아개념은 오늘날 “병들어 앓고 있는” 민주주의에 품위, 자중자애, 책임감, 겸손, 관대함, 그리고 사랑과 같은 덕성들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초월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신적인 자아개념은 “한울님으로서 동등한 사람들”(heavenly equals)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고결해지는, 보다 품격있는 상호관계를 복돋아 줄 것이다.

Ⅲ. 안재홍의 자아개념: 나

안재홍(1891-1965)은 해방정국에서 활동했던 주요정치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소년시절부터 문제가 뛰어나 자라서 중국의 사마천(司馬遷)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기(自期)했던 인물이다. 그는 일본제국주의시대에 일본 와세다대학 정경학부에서 공부했고, 한국의 권위있는 일간지 중 하나인 조선일보(朝鮮日報)의 논설기자, 주간, 부사장, 사장을 역임하며 항일 논설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민족유일당운동으로 일제에 저항했던 신간회(新幹會)의 핵심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고, 『조선상고사감』, 『한민족의 기본진로』,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등을 저술하며 한민족의 쫓대를 지키고 ‘조선정치철학’의 체계를 잡는데 선구자적인 업적을 남긴 지식인이었다. 그는 일제 35년동안 9차례나 투옥되면서도 끝내 일제에의 협력을 거부했던 몇 안되는 민족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 해방정국에서는 ‘다사리이념’을 제시하여 민족통일과 이데올로기적 독자성을 추구하였고,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 국민당 당수, 좌우합작위원회 우측대표를 역임하며 ‘건전우익’이 주도하는 좌우합작의 성사를 위해 노력했다. 잠시 미군정의 민정장관(民政長官)으로 일하면서 극단적인 좌우대립과 그로 인한 한국정치의 퇴보를 예방하고자 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

Future(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p.39-42.

22) Vaclav Havel, “Democracy’s Forgotten Dimension,” *Journal of Democracy*, Vol.6, No.2, p.8.

지만 6.25가 발발하면서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다.²³⁾

‘조선정치철학’을 나름대로 체계화하고자 했던 정치철학자로서 안재홍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생활이념”이 내재해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언어에 대한 해석적 이해를 통해 그 “생활이념”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²⁴⁾ 그가 ‘조선정치철학’을 체계화한 것도 순수한 한국어들에 대한 언어해석적 방법을 통해서였다. 그는 ‘다사리주의’라고 표현한 한민족 고유의 정치이념을 제시하고 좌우대립이 극심했던 해방정국에서 이를 극복하는 보편적 민족주의의 하나로 ‘신민주주의와 신민족주의’를 내세웠으니, 그의 이와 같은 철학적, 사상적 사유 속에 나타난 인간관과 자아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다른 우주만물과 함께 ‘비,’ 즉, 무(無) 혹은 허(虛)에서 비롯되었다. 안재홍은 무엇보다도 서양의 관념론과 유물론에 대한 데카르트적 해석에 반대하고, 대신 ‘비-씨-몬’(emptiness-seed-matter)의 민족고유한 전일적 철학을 제시했다. 한 마디로 만물의 근원은 ‘비’임을 밝힌 것인데 안재홍은 이러한 철학이 고대 한민족의 우주관, 인간관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한민족의 철학적 전통에서 물질과 의식은 서로 분리되었거나 대립적이지 않고 전일적으로 통합되어 있음을 논증하고자 했다. 그의 ‘비’는 노자가 말했던 우주만물의 창조적 근원인 본무(本無) 혹은 허공(虛空)과 같은 개념으로,²⁵⁾ 한민족에게 일찍이 그러한 사상이 있었음은 생명창조와 인류역사의 발전과 관련된 많은 순한국어들이 ‘비’를 포함하고 있는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²⁶⁾

나아가 안재홍은 노자가 생각한 만유(萬有, Something)의 근본에 해당되는 것을 ‘씨’와 ‘몬’으로 보았는데, ‘씨’는 생명이 있는 유기체들의 근본이고, ‘몬’은 무생물의 근본이라 했으니, 노자보다 더 과학적이며, 노자의 우주관을 더 세련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람은 사람의 ‘씨’(seed)인 정자(sperm)에서 비롯되고, ‘씨의 출입문’이란 뜻의 여성(아씨)의 생식기, 즉, ‘씨입’(種口)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모든 무생물은 ‘몬’(molecule)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 몬지

23) 천관우, 「민세 안재홍 연보」, 『창작과 비평』, 1978년 겨울호, 212-254쪽 참조.

24) 안재홍,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서울: 민우사, 1945).

25) “Something and Nothing produce each other” and “the myriad creatures in the world are born from Something, and Something from Nothing,” *Lao Tzu: Tao Te Ching*(Penguin Books, 1963),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by D.C. Lau, p.58, 101.

26) 예컨대, 다음과 같은 낱말들이 있다. 비롯하다, 빌미, 배, 배다, 빛, 불, 등.

혹은 먼지(dust)에 ‘몬’이 포함되어 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같은 철학적 해석을 통해, 안재홍은 한민족이 각종 차원의 경험들 — 즉, 자연적, 신적, 인간적, 추상적, 실제적, 가시적, 또는 불가시적인 — 을 통해 이러한 ‘비’의 철학을 내재화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우주를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민족고유의 철학과 우주관의 회복으로 해방정국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그로 인한 정치사회적 혼란이 극복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정치적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²⁷⁾

둘째, 사람은 하늘과 땅과 함께, 즉, 천지인삼재(天地人三才) 중 하나이다. 이러한 철학은 숫자를 세는 순한국어인 “하나, 둘, 셋”이 각각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르고 있음에서 확인된다. ‘하나’ 혹은 ‘한’은 ‘하늘’(天, heaven)이다. ‘하나’는 또한 무수한 물체와 생물들을 포함하면서 홍대(洪大)하게 펼쳐진 우주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하나는 곧 여럿이다”(一卽多)라는 철학적 명제가 나오는 것이며, 이 ‘하나’는 대동사회(大同社會)를 희구하는 한민족의 이상을 뜻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둘’은 ‘들’(野, field, land)이다. ‘들’ 즉, 대지에는 만물이 가득 차고 또 만물들은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섬기고 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중국의 고전인 역경(易經)에서도 발견된다.²⁸⁾ 마지막으로 ‘셋’은 ‘씨앗’(種子, seed)으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은 ‘씨앗’이나 정자(sperm)로부터 생성되는 것임을 함의하고 있는 숫자이다. 그리고 숫자의 배열이 하나, 둘, 셋과 같이 된 것은 바로 앞의 하나와 둘이 지칭하는 하늘과 땅은 비로소 사람이 존재해야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하나의 보편적 원리를 함의하고 있다.

셋째, 개인인 ‘나’는 철학적으로 타인과 국가, 그리고 세계와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그러한 통합적인 우주적 관계의 핵이자 중심이다(cosmic nucleus)이다. 안재홍의 이러한 사상은 숫자 ‘넷’과 “나, 남, 나라, 누리” 등 순한국말이 다같이 “n”의 음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언어적 특성을 철학적으로 해석한 데서 비롯되었다. ‘넷’은 ‘낳음’(生)의 뜻을 가진 것이니 ‘사생’(四生)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태어나고 존재하는 이후에야 나아가(進) 남도, 나라도, 누리도 있다. 즉, ‘나’는 실천적 차원에서 삶의 이념과 이상을 소유한 주체이자 실천주체

27) 안재홍, 『신민주주의와 신민족주의』(민우사, 1945), 20-22쪽 참조.

28) *I Ching: The Classic Chinese Oracle of Change*(Shaftesbury, Dorset: element, 1996), translated by Rudolf Ritsema and Stephen Karcher, pp.103-113.

이다. 따라서 ‘내’가 태어나 살고 정립된 연후에야 남도, 나라도, 누리도 그 존재의 의미가 살아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존재하는 선국가적(先國家的) 개념이며, 따라서 그 존엄성과 기본권은 국가에 의해 임의로 유린될 수 없다. ‘남’도 ‘나’와 다를 바 없이 이 세상에 ‘남음’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며, 정신적으로 ‘나’와 아주 가깝고 유사한 존재양태를 지닌 개체이다. ‘나라’ 즉, 국가는 정치적 지배를 위한 행정적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나’ 곧 각 개인들의 삶과 행복에의 소망을 바탕으로 하는 정신적인 공동체이다. ‘나’는 ‘나라’의 구성원이며, ‘나라’는 이러한 개인들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목적과 방향에서 형성되고, 발전하며, 전진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나라의 법과 제도는 이러한 ‘나’들의 자유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여기에서 ‘나 곧 나라’요 ‘나라 곧 나’라는 이상주의(理想主義)가 나오는 것이다. ‘나’는 ‘나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똑같은 논리로 ‘나라’는 다른 ‘나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주의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가 배척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이치다. 이와 똑같은 논리가 ‘나라’와 ‘누리’ 사이에도 적용된다. 안재홍은 이를 통해 우리 한민족의 전통 속에도 개인의 자유, 내셔널리즘, 사해동포주의, 반제국주의, 반전체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와 이상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한편, 안재홍은 우주핵인 ‘나’는 우주만물의 운행원리 즉 섭리이자 치리인 “다사리주의”에 의해 다스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사리는 “우주운행의 근본원리”, “정치”, “민주주의” 등의 의미를 가지는 순한국어로서, 안재홍은 숫자해임말 ‘다섯’이 이러한 다사리의 이념(五治理)을 포함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또 그는 다사리이념은 건강한 인간공동체에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민주정치적 두 가지 원리, 즉 진백(盡白)의 원리와 진생(盡生)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한국정차사상의 민주적 연원을 밝히고자 했다. 진백이란 “모든 사람이 충분히 다 말함”의 뜻으로 만민총언(萬民總言)과 같다. 다사리이념이 진백의 원리를 지닌다는 해석은 다사리란 말이 “모두 말하게 하여”란 뜻의 “다사리어”와 어원을 같이하고 있음에서 비롯되었다. 다른 한편, 다사리이념은 진생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진생이란 “모든 사람을 살게 한다”는 뜻으로 만민공생(萬民共生)과 같다. 다사리이념이 진생의 원리를 지닌다는 해석은 다사리란 말이 또한 “모두 다 살게 한다”는 뜻의 “다 살린다”와 어원을 같이 함에

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해석으로 보아 진백은 자유이념과 상통하고, 진생은 평등이념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안재홍은 다사리가 결코 양 원리의 병렬적 종합이 아님을 밝혔다. 즉, 안재홍은 진백과 진생의 원리는 서로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 진백은 정치과정상 사상과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허용하는 <정치의 수단>으로, 그리고 진백은 정치의 궁극적 이상, 즉 <정치의 목표>로서,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다사리이념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다사리이념이 단군시대의 홍익인간사상에 그대로 나타났으며, 제도적으로는 삼한시대의 제가평의, 정사암, 화백 등의 형태로 표현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고려, 조선왕조를 거치면서 다사리이념은 소수지배계급의 민주주의로밖에 실천되지 못했다고 평가했고, 해방직후 한국에서는 보다 많은 대중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이념으로 되어야 하며 또 이를 통해 서양의 좌우이데올로기에 의한 국내분열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대의회제도가 다사리이념을 현대적으로 실천하는 도구라고 했다.

요컨대, 안재홍의 자아개념, 즉, ‘나’는 우주핵으로서 다른 사람들은 물론 국가 및 세계와 내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다. 또 ‘나’는 천지인의 우주삼재 중 하나이며, 태어날 때부터 사람으로서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부여받았다. ‘나’는 ‘남’ ‘나라’ ‘누리’와 함께 동일한 [n]음을 가를 바탕으로 하는 순한국말로써, 이것은 ‘나’라는 개인이 다른사람들, 국가, 세계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개인들은 우주의 대섭리인 다사리이념에 따라 다스려지게 되어 있다. 안재홍의 이러한 자아개념은 최근 데카르트철학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제시된 “우주적 공존철학”(Cosmic-Together Philosophy)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그의 ‘나’는 ‘우주적 자아개념(cosmological concept of self)’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안재홍의 ‘나’로서의 자아개념은 인식론적 주체의식을 바탕으로 이웃, 국가, 세계와의 공동체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공동체적 이념지향의 최고수준이라 할 수 있는 사해동포주의(cosmopolitanism)를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코스모폴리탄사상이 과거에는 비난과 경계의 대상이었지만 지구촌시대인 오늘날에는 상식이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정부와 같은 지구적 단위의 정치체에 대한 논의가 빈번해지고 있다.²⁹⁾ 따라서 앞으로 안재홍의 ‘나’ 즉 우주

핵(cosmic nucleus)으로서의 자아개념은 인간적 교류의 범위를 공간적으로 확대시키거나 오늘날의 세계적 무질서현상에 대처하는 정치적 대안을 탐색하고 강구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나'와 같은 우주적 자아개념은 극단적인 내셔널리즘을 적정수준으로 순화하고, 인류생존과 세계평화의 필요때문에 지구적 협력을 위한 각종 정치적 이니셔티브들을 촉진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V. 김지하의 자아개념: 생명 — 東學의 영향

시인 김지하(1945-)는 과거 60, 70년대에 빈번했던 반정부운동의 전면에 나섰던 대표적인 참여파 지식인이었고, 지금은 생명철학(生命哲學, life philosophy)을 전파하고 있는 문명비평가이다. 그는 자신을 철학자로 여기지 않았지만, 생명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와 국가, 세계, 그리고 우주에 대한 아주 새로운 전망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소규모의 구체적인 프로그램들도 제시했다. 그의 관심은 생명에 대한 형이상학적 체계를 갖춘 철학을 정립하는 데 있지 않고, 다만 근본적인 깨우침을 통해 인간생활의 조건과 환경을 새롭게 만드는 데에 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반정부투쟁운동에 나서지 않으나, 그의 생명철학은 환경운동, 도덕성회복운동, 지방자치, 정치개혁 등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김지하는 감옥에서 얻은 지병 때문에 약 4년 동안 칩거하며 지내다가, 지난 1991년 중반부터 다시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강연원고들은 『타는 목마름에서 생명의 바다로』³⁰⁾란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그는 이미 1982년에 『타는 목마름』이란 제목의 시집을 냈었는데, 이것으로 보아 김지하는 그 사이에 매우 의미 있는 사고의 전환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과거 김지하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목이 말라 있었다. 지금은 비록 그 목마름이 완전히 사라지지

29) 세계정부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바람. Karl W. Deutsch, *Nationalism and Its Alternatives*(New York: Alfred A. Knopf, 1969); Strobe Talbott, "The Birth of Global Nation," *TIME*, July 20, 1992, pp.56-57; 줄고, 「내셔널리즘이후의 세계 질서...」, 『유럽연구』, 1994년 창간호.

30) 김지하, 『타는 목마름에서 생명의 바다로』(서울: 동광출판사, 1991).

는 얹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 덜하다. 그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부분적으로 드넓은 생명의 바다를 향해하고자 하는 그의 확고한 의지 때문이다.

김지하는 197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구속되었을 때 작고 활기 없는 감방 한 구석에서 잔면지를 쓰고 자라고 있던 풀 한 포기 보는 순간 생명의 소중함과 경외스러움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감방 안에서 지내는 동안 여러 종류의 책들을 읽을 수 있었고 그 중 특히 동학에 관한 책들은 그의 사상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의 사상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생명(生命)이다. 그는 생명에 대한 세련된 개념을 말하지 않는 대신,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생명이 주어졌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진정한 생명의 질서로부터 크게 유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생명으로부터의 유리현상은 대체로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한 데카르트적 이분법과 뉴턴의 기계적 우주관이 팽배했던 것에서 비롯된 결과로 본다. 김지하의 생명철학에 나타난 그의 자아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첫째, 김지하는 동양의 사상적, 종교적 맥락에 따라서, 인간의 몸과 마음은 서로 분리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만물에 내재한 생명에너지 기(氣)를 지닌 존재들이라 믿고 있다. 생명체이든 무생물체이든 우주 안의 모든 사물들은 모두 기로써 만들어진 존재들이다. 그는 모든 사물들은 기를 지녔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대화는 생물끼리 뿐만 아니라 생물과 무생물 사에서와 무생물끼리도 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지하의 이러한 생각은 오로지 동양철학적 전통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그는 1977년 노벨화학상을 받았던 일리아 프리고친(Ilya Prigogine)의 영향도 받았다. 프리고친은 물을 끓이면 물분자들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화한다고 주장했다. 우주만물이 기라는 생명에너지로 만들어졌다는 김지하의 생각은 질량(물질)이 에너지로 바뀌고 에너지가 질량(물질)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와의 상통하는 바가 있다. 아인슈타인의 질량-에너지불변의 법칙은 세계가 완전히 고립되고 닫힌 존재들로 만들어져 있다는 뉴턴적 개념에 대한 하나의 비판이다.

이러한 기철학을 바탕으로 김지하는 생명현상을 특히 커뮤니케이션이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능력이 있다는 것은 곧 생명이 있음을 밝히는 증거이며, 또 우주 안의 모든 것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생명이 있다. 생명에 대한 이같이 광범하고 개방적인 견해는 환경운동에 직접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 따라서 그가 생태환경보호에 남다른 논리와 열정을 지닌 사람들 중 한 사람임은 크게 놀랄 바가 안된다. 그러나 그는 “환경”이란 용어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고 “보호”라는 말은 더 안 좋은 말이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는 이같은 뜻을 담은 마땅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환경이란 말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둘째, 김지하는 사람을 그가 속해 있는 사회와 연속적이면서도 불연속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하나의 개방시스템”(an open system)으로 간주한다.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보았던 홉스의 견해로 볼 때, 사람과 사회와의 관계는 불연속적이겠지만, 어찌되었든 사람은 누구나 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속적이기도 하다. 김지하는 “연속-불연속의 원리”와 “예-아니오의 원리”를 일찍이 동학으로부터 배웠으며,³¹⁾ 이러한 원리들이 인간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헤겔이나 맑스의 변증법보다 더 적절한 논리적 틀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또 다윈의 적자생존의 법칙과 홉스의 만인투쟁론, 그리고 맑스의 계급투쟁론 등은 모두 뉴턴의 기계주의적 세계관의 산물로 이해한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에서 볼 때, 오늘날의 서구산업문명을 인류에게 적합한 문명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 나아가 김지하는 현대서구문명이 종말에 다가서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눈에 현대서구문명은 생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철학도 없다는 것 외에도 명백한 종말의 징후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는 현대서구문명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한국사회도 역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한다. 오늘의 사회는 산업화사회에 내재하는 여러 겹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는 “집단 정신분열증”에 걸려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 김지하의 진단이다. 이러한 정신분열증의 끝에는 범죄율 증가, 정치 사회 경제적 윤리의 전면적 붕괴, 대중의 종교에의 탐닉, 현실도피수단으로서 마약 사용의 급증 등이 따른다.

셋째, 사람의 생명은 물론 모든 생물들의 생명까지도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

31) 즉, 최제우의 “아니다 그렇다”(不然其然)이라는 창조적 진화사상과 최시형의 “궁음이 문명을 되돌린다”(弓乙回文明)라는 철학을 이른다. 弓乙이란 ‘아니다 그렇다’의 이치를 압축한 동학의 상징이다.

해야 한다. 김지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최제우와 최시형의 동학사상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들은 인내천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은 서로서로 존경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극진하게 존경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자존(self-respect)이란 한울님이 살아 있는 자신의 몸에 대한 진지한 보살핌에서 시작된다. 또 사람의 몸과 그가 사는 땅은 원래 본질상 동일함으로(身土不二), 토박이음식을 먹고사는 것이 몸을 섬기는 좋은 영양섭취방식이다. 동학은 또 먹는 것은 곧 내 몸 안에 있는 한울님을 섬기는 것이므로 마치 조상에게 제례를 올릴 때처럼 엄숙하고 예의바르게 식사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는 식사를 할 때, 밥 한 그릇이 밥상 위에 올려지기까지의 과정에 참여했던 수많은 생물과 무생물들을 생각할 때, 생명에 대한 경외스런 마음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에게 있어 이러한 것에 대한 자각이 바로 삶의 의미와 우주의 질서, 그리고 사랑과 존경의 가치를 깨닫는 각성의 출발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밥 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이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좀처럼 많지 않는 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참된 삶의 질서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예들 중 하나이다. 김지하는 밥과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같은 관심이야말로 환경운동과 사회정치적 개혁운동에 참여하는 참다운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동시에 그는 사회개혁운동 참여자들은 기존의 철학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랑과 존경에 바탕을 둔 새로운 세계관으로 재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넷째, 김지하는 생명철학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스타일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생활스타일이란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생산하고, 소비하며,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그는 밥먹는 일에서의 변화를 생활스타일의 혁명의 출발로 여겼으며, 이러한 생활스타일의 혁명은 곧 현재의 산업문명의 점진적인 발전을 유도할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 중 하나로 김지하는 논밭에서 화학비료를 줄여주는 유기농업을 장려했다. 유기농업은 그 생산품들의 가격이 높아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전체노동자들이 일치단결하여 화학비료를 하나도 안 쓴 농산품만 쓴다면 정착될 수 있다. 또 그는 생명철학에 바탕을 둔 새로운 세계관과 비전을 더 널리 퍼기 위해서, 여러 개혁지향적 사회단체들이 가칭 “생명학교”를 열어 동양철학, 신다이어트식사법, 명상, 그리고 기초의학 등을 배우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김지하는 여러 소단위공동체들이 어우러져 사는 사회를 이상으로 삼고 있다. 이런 소단위공동체들에 있어서 주요정책들은 대체로 주민이 참여하여 결정하며 서로 고립되지 않고 하나의 느슨한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소단위공동체에 대한 희망에 따라 그는 정부관료기구나 대형산업체와 같은 권력집중적 조직에 대해 단호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를 적극 지지한다. 그는 도시노동자들에게 소단위공동체의 건설을 주문하고 있으며, 동시에 유기농업에 의해 재배된 농작물을 구매함으로써 농민들이 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 개혁운동은 노동자와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경영하는 소단위공동체의 건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지하는 생명철학을 통해 새로운 문명의 건설을 바라보며 세계적 차원의 문명변혁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생명철학이 한반도에서 대립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적 주체사상을 발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컨대, 김지하는 동학의 인내천사상의 영향으로 우주의 생물과 무생물이 모두 기(氣)를 지닌 생명체이며 따라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사람도 물론 기생명체(氣生命體) 중 일부이다. 이러한 김지하의 생명으로서의 자아개념은 생태적 개념(ecological concept of self)으로 볼 수 있다. 김지하는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개념에서 비롯된 기존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스타일은 대대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생명철학에서 사람은 그 사회적 관계가 “연속적이면서도 불연속적”으로 지속되는 하나의 열려진 시스템(an open system)으로 규정되고 있다. 김지하는 사람과 우주의 모든 존재는 상호 사랑과 존경의 대상임을 천명하면서, 이 생명철학의 실천을 위해 유기농법이나 소단위공동체운동, 지방자치운동 등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프로그램도 제시했다.

김지하의 생명으로서의 자아개념 — 즉, 자연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에게까지 열려있는 김지하의 자아개념 — 은 장차 새로운 문명을 창출해낼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환경운동과 정치사회적 개혁운동을 고무한다. 이러한 생명사상에서 나오는 각종 지혜들은 인간생명과 자연자원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지구적 정책결정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지하의 생태적 자아개

념은 이미 갈 데까지 가버린 물질주의와 산업화에 의해 찌들어 있는 현대문명을 새롭게 각성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V. 맺음말: 이론적 함의들

이상에서 논의에서, 한국의 근현대사와 함께 등장했던 철학적 자아개념은 각각 신, 국가 및 세계, 그리고 자연대상물 등에 대해 “열려 있는 존재임”이 발견되었다. 다시 말해서, 한국근현대사의 주요 철학적 사고 속에서 개인들은 서로 고립되거나 적대적인 대상이 아니라 이상과 같은 각 차원들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귀중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열린 나”는 서양의 정치철학적 전통에서도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서양근대정치사 동안 이같은 “열린 나”의 속성들은 감춰지거나 의도적으로 제외되어 이른바 “교만하고 고립된 자아”개념이 근대자유주의적 인간관을 대표해왔던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열린 나”의 자아개념과 그에 따른 정치사상은 오늘날 어떠한 이론적 함의를 갖는 것인가?

첫째, “열린 나”의 개념과 그에 바탕을 둔 사상(철학)들은 인간을 자기이익에 따라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생존에 급급한 존재”(survival machines)로만 더 이상 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철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열린 나”로서의 인간들은 이기주의적 본성을 넘어서서 덕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자기이익에 따라 행동한다는 공리를 즉시 부정할 수는 없다. 대신, 우리는 덕스럽고 이타적인 행동들은 인간으로서 결코 예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기이익에 따라 개명된 행동들 중 최고수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은 천사가 아니라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친절한 이웃이다.³²⁾ 그리고 자연상태를 “외롭고 짐승과 같이 사나우며, 자기이익이란 순간적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대립하는 전쟁상태로 보았던 홉스의 현실주의 정치철학

32)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바람. Matt Ridley, *The Origins of Virtue*(London: Viking, 1996); A Riview essay by Ferdinand Mount in *The Sunday Times*(December 15, 1996).

은 재평가되어야 하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반드시 그의 도덕이론(Theory of Moral Sentiments)과 함께 읽혀지고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스미스는 인간은 “공평한 구경꾼”(impartial spectator)과 “자기절제”(self-command)란 두 가지 도덕적 원칙들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서 덕스러운 상업행위를 하며 나아가 부의 창조가 곧 문화창조가 되게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국부론』을 썼기 때문이다.³³⁾

둘째, “열린 나”의 인간관에서 볼 때, 인간은 각 차원과 연결된 관계망 속에 존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란 단순히 권력투쟁으로 환원되기보다 지도자와 국민들이 공동의 가치와 목표실현을 위해 참여하는 “리더십과정”으로 이해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론적으로 엘리트는 “지위중심적인”(positional) 닫힌 개념이지만, 리더십은 타인들과의 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그 내용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관계중심적인”(relational) 열린 개념이다. 그리고 리더십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작용적 관계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제는 정치를 엘리트 사이의 권력게임으로만 생각하기보다 현재 및 미래의 국민전체의 복리를 위한 도덕적, 정책적 이니셔티브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보살피려는 리더십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다. 리더십은 물론 독재와 동일시되어서는 안되며 “가능의 예술”로서의 정치를 현실화하는 매개적 기능이다.³⁴⁾

셋째, “열린 나”의 인간개념과 함께 평화적인 신세계질서의 구축을 위한 코스모폴리타니즘의 회복과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노력이 적극화되어야 한다. 다국적기업들이 “착취자”라는 지금까지의 비판을 극복하고 국경과 인종구분을 넘나드는 각종 다양한 문화교류사업을 지원하거나 주관한다면, 이것은 미래세대들에게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컨대, 지구적 네

33) J.M. Evensky, “The Two Voices of Adam Smith: Moral Philosopher and Social Critic,” in John C. Wood, ed. *Adam Smith: Critical Assessments*, 2nd series, Vol.VI(London: Routledge, 1994), pp.175-185; Donald Winch, “Adam Smith: Scottish Moral Philosopher as Political Economist,” *The Historical Journal*, 35, 1(1992), pp.91-113 참조.

34) 이같은 논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함. William A. Welsh, *Politics as Leadership*(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1979), pp.17-21; Robert C. Tucker, *Politics as Leadership*(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81), p.11; Ghita Ionescu, *Leadership in an Interdependent World*(London: Longman Press, 1991).

트월을 유지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은 서로 협조하여 “우리자식돕기운동”(OSDP, Our Sons and Daughters Program)을 통해 각국의 잉여식량을 아프리카 빈국이나 북한에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지구화 혹은 세계화가 단순히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의 지리적 확산만을 의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구적 활동망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나 기업들이 사해동포애적 문제의식에서 적극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이미 만들어진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세계차원의 기능별 문제해결 전담기구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한다. 과거엔 이러한 사해동포적 이니셔티브들이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현실적 요구가 더 많은 것 같다.